

심층생태학과 생물평등 및 자아실현으로서의 환경정의

최병두

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교수

1. 서론: 모더니티의 위기로서 환경위기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한 이래,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지구의 자연환경과 대적하면서 이를 정복해왔지만, 그 자연의 지배로 인해 인류는 심각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자연의 지배는 지난 300여 년간 서구사회에 만연한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 간의 데카르트적 이분법에 기초한 근대성(modernity)과 이를 구현하는 근대화 과정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가속적으로 팽창해온 경제적 부(또는 자본축적)는 대규모 생산설비의 구축과 대량의 원료 및 에너지원의 투입,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는 생산과정 및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과정에서 엄청난 오염물질들의 배출을 요구했다. 많은 논평가들은 이러한 근대적 산업화 또는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은 서구사회에서 과학기술의 가속적 발달과 이를 가능하게 했던 근대적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Giddens, 1990 참조).

특히 데카르트적 철학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주체와 객체 간의 분리 및 이와 관련된 이분법적 대립항들, 대표적으로 인류중심주의적 입장에서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의 인간과 자연 간 이원론은 자연의 객관화, 과학기술의 도구화, 그리고 이에 따른 자연의 정복과 지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화 및 근대성의 발달은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생태적 위기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이었다. 특히 생태적 측면에서 보면, 이원론적 근대성에 기초한 인간의 의식은 자연을 도구적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러한 근대성에 의해 추동된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은 생산성의 증대 또는 자본축적을 최고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자연을 재생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시켰다. 나아가 이러한 도구적 환경의식과 자연환경의 황폐화는 생태계의 일부인 인간에 대해서도 도구적으로 인식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까지 파괴화시키게 되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자연의 파괴와 더불어 인류파멸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과의 공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탈근대주의)은 근대 서구사회의 의식과 현실을 특징지었던 근대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속에는 특히 생태위기에 초점을 두고 모더니티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생태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모던 “생태철학은 근대성의 잿더미에서 부활하는 불사조”로 비유되기도 한다(정화열, 1996).

특히 반모더니티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포스트모던 생태학으로 분류되는 생태적 주장들에는 심층생태학, 사회생태학, 생태여성주의, 그리고 탈구조주의적 생태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반(反)모더니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모더니티의 체현으로 구축된 근대 산업사회 또는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어떤 ‘과학적’ 분석과 비판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들은 모더니티에 반대하는 비판적 담론들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생태적 함의를 내포하는 어떤 윤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즉, 심층생태학을 포함하여 포스트모던 생

태학은 첫째, “근대적 합리성의 억압적이고 거세된 속성에 대한 비판”과 둘째, “평등, 차이에 존중 그리고 모든 유형의 지배적 또는 종속적 관계의 회피에 대한 강조”를 공유한다(Frodeman, 1992: 308-309). 그러나 다른 한편, 포스트모던 생태학(심층생태학, 탈구조주의적 생태학, 그외 사회생물학 및 반과학주의도 포함하여)은 “‘인간 혐오’와 ‘신비주의’ 그리고 ‘허무주의적 색채’를 띠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구승희, 1999).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포스트모던 생태학(특히 근본환경론)의 한 영역을 이루고 있는 심층생태학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환경윤리, 특히 환경정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바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포스트모던 생태학으로서 심층생태학의 기본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들의 주장에서 환경윤리적 함의들을 가지고 있는 주요 개념들, 특히 생물평등과 자아실현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심층생태학의 입장을 탈구조주의적 생태학과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생물평등주의와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환경정의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포스트모던 생태학으로서 심층생태학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은 이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도 가장 중심적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노르웨이 철학자 네스(Naess)와 더불어 드볼(Devall), 세션(Sessions), 그리고 폭스(Fox) 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의 기여로 발달한 “포스트모던 생태학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Stark, 1995: 259). 네스에 의하면, “오염과 자원고갈에 맞서 싸우고... 선진국 주민들의 건강과 풍요를 보존하는 일”에 몰두하는 ‘얕은 생태운동’(shallow ecology movement)은 강력하지만 미봉적인 반면, “아직 영향력은 미약하지만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동”, 즉 심층생태운동이 필요하다고 주

장된다(Naess, 1973: 95; 문순홍 역, 1999). 즉, ‘심층생태학’은 네스의 입장에서 본 ‘얕은 생태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으며, 특히 3가지 기본적 관점에서 그렇게 불린다. 첫째, 이는 일부 기본적 사회경제적 실행에 대해 부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얕은’ 환경론을 거부한다. 둘째, 이는 이러한 실행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에 대해 ‘보다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 셋째, 이는 자아와 자연에 대해 본연적이고 정신적인 일체화에 기반이 되는 ‘전체 세계관’을 포용한다(Naess, 1989: 27-28, 163, 171-176).

이와 같이, 네스가 심층생태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을 때는 철학이나 사회이론이라기보다는 생태운동의 한 차원에서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 약 30년 동안 이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생태위기를 유발한 인류중심적 (그리고 유럽중심적) 모더니티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스피노자와 간디, 불교나 도교, 북미 원주민들의 자연관 등으로부터 주요한 개념들을 도입·발전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심층생태학은 현대 생태적 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실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생태담론의 측면에서, 심층생태학은 초인간적 생태학(transpersonal ecology), 영성적 생태학(spiritual ecology) 등으로 확대 또는 분과되기도 했으며, 사회생태학, 생태여성주의, 그리고 생물지역주의 등과 일정한 (때로 비판적) 연계 속에서, 탈구조주의적 사상들과 비교될 정도로 발전해왔다(최병두, 2001).

네스(Naess, 1973)가 처음 심층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그 기본적 요소로서 제시한 심층생태학의 7가지 원칙은 ① ‘환경-속의-인간’(man-in-environment)이 아니라 총체적 장의 이미지(total-field-image: 즉, 생물계라는 그물망의 결절점으로서 유기체의 이미지), ② 원칙상의 생물평등주의, ③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 ④ 계급적 입장예의 반대, ⑤ 오염과 자원고갈에 대한 반대, ⑥ 뒤얽힘이 아닌 복잡성, ⑦ 지역적 자율성과 분권화 등을 포함한다. 네스는 이러한 “7가지 공식 대부분이 모호하게 일반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향후에 특정 방향에서 정교화되지 않는다면, 외

부의 비판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후 네스는 자신의 초기 주장들을 보다 정교화시켜 이러한 원칙들의 연장선상에서 심층생태학 운동의 ‘발판’(platform)으로서, ① 자연의 내재적 가치, ②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 ③ 인간은 생존적 필요충족을 제외하고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음, ④ 비인간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간섭 배제, ⑤ 인간 및 비인간 생명의 번성을 위한 인구의 상당한 감소, ⑥ 자연조건의 유의한 변화를 위한 정책의 변화, ⑦ 내재적 가치를 위한 이데올로기 변화, ⑧ 이러한 변화를 위한 실천에의 참여 등 8가지 원칙을 다시 제안한다(Naess, 1989: 29). 네스는 이 8가지 공식이 “심층생태학 운동의 거의 모든 지지자들에 의해 채택될 수 있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일단의 진술들”이라고 서술한다(Naess, 1995: 214). 그리고 그는 이러한 원칙들에 기초하여 자연과의 새로운 철학적 관점을 생태철학(ecosophy)라고 부르고자 한다.

심층생태학의 기본원칙 또는 심층생태학자들이 합의하는 기본적 발판으로서 이러한 생태철학적 주장들은 실제 다른 심층생태학자들의 원칙 설정이나 또는 이에 대한 논평가들의 요약에서도 확인될 수 있지만, 다소 달리 표현되거나 해석되기도 하며, 또한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기도 한다. 예로, 심층생태학의 핵심적 지지자인 드볼(Devall, 1980: 303-311)에 의하면, 심층생태학은 첫째, “다양성, 복잡성, 자율성, 탈중심성, 공생적·평등적·초계급적 원칙들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둘째, 심층생태학은 “‘자연-속의-인간’이라는 이미지, 말하자면 인간, 동물, 대지가 영적인 상호관계를 인식하는 그런 이미지”를 전체로 한다. 즉, 심층생태학은 인간중심주의를 포기하고, 인간을 자연에 재편입시킴으로써 생명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셋째, “심층생태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주체/객체, 인간/자연이라는 이분법을 거부하고, 이 지구의 전체적인 통합이라는 총체적 인식을 요구한다.” 심층생태학에 대한 스타크(Stark, 1995)의 논평에 의하면, 심층생태학은 다음과 같은 가정, 즉 모든 생명의 상호관련성(생물공동체), 생물적 관련성의 전반적 체계의 일부로서

모든 유기체들의 본질적 평등(생물민주주의), 인간중심적 주장의 거부(반인간중심주의), 자연의 ‘내재적 가치’의 개념화(생태중심주의), 자연과의 근본적인 일체화(또는 정체화)로서 인간성의 목적(자아실현) 등을 반영하고 있다.

심층생태학자들이 합의하고 이들의 주장에 함의되어 있는 원칙들이 가지는 의의로서, 우선 심층생태학은 주체/객체, 인간/자연의 이분법에 내재된 문제점(즉 모더니티의 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연 또는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정립, 즉 ‘관련적 총체적 장으로서의 자연’을 개념화하고자 했다. 심층생태학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거부하고, ‘관련적 총체적 장’의 이미지를 선호한다. 총체적 장 모형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환경 속의 사물’이라는 개념을 해체하고자 한다.¹⁾ 후자의 개념들은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철학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을 전제로 하는 서구의 모더니티에 내재된 개념으로, 심층생태학은 이러한 개념들에 반대하여, 세계의 모든 것들은 내적 관련성에 기초한 전반적 통일성의 일부이며, 그 속에 있는 다른 것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심층생태학자들은 오늘날 서구사회가 봉착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원론과 개인성을 부정하는 대신 통일과 전체성을 긍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발견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주체/객체, 인간/자연이라는 이원론의 거부를 요청하며, 혹성으로서 지구의 전체적인 상호연계성에 관한 보편적인 인지를 요청한다”(Devall, 1980: 311).

그렇지만 심층생태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러한 통일과 전체성에 관한 심층생태학의 긍정은 다양성과 탈중심화의 채택과 즉각적으로 연계되며, 따라서 서구의 철학적 및 종교적 사고에서 흔히 발견되는 통일-지향적 형이상학적 주장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된다. 사실, “세계는

1) 즉, 네스에 의하면, “유기체와 환경은 두 가지 (분리된) 사물들이 아니다. — 만약 쥐가 절대적 진공 속에 있다면, 이는 더이상 쥐가 아니다. 유기체는 환경을 전제로 한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그가 전체의 장 속에서 관련적 접점이 될 경우에만 자연의 일부가 된다. 일체화의 과정은 이 접점을 정의하는 관계들이 점점 더 포괄적이 되도록 확대되는 과정이다. ‘(소)자아’(self)는 ‘(대)자아’(Self)를 지향하여 성장한다”(Naess, 1989: 56).

인간과 비인간적 자연 간 불연속이나 경계 없이 ‘단절되지 아니한 전체’로서 존재한다”는 네스(Naess, 1973: 96)의 주장은 스피노자(Spinoza)에게로 소급되며, “전체와 부분은 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그의 견해(Naess, 1989: 59)는 화이트헤드(Whitehead)와 같은 비판적 철학자들이나 사회이론가들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스(Naess, 1989: 79)가 주장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련적 개념화, 즉 “유기체들은 생물계라는 그물망, 혹은 본질적인 관계망의 결절점(매듭)이다”라는 주장은 하비(Harvey, 1996: 167)에 의해서도 승인된다. 즉, “인간은 환경 속에 있는 한 사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상에 결정된 경계 없이 관련적 체계에 있어 한 결합점이다”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심층생태학은 그물망 또는 관계망으로서 ‘총체적 장’으로서 자연(또는 생태계)에 대해 이해를 능가하여, 자연이 그 자체로서 어떤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본질적인 내적 문제점과 외적 비판을 받게 된다. 심층생태학은 발판으로 제시한 8가지 원칙들 가운데, 앞선 세 가지로서 이러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즉 심층생태학에 의하면, “지구상의 인간과 비인간 생명의 번성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비인간 생명체의 가치는 이들의 협의적인 인간적 목적을 위해 가지는 유용성과는 무관하다”[원칙 1].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며, 지구상의 인간과 비인간 생명의 번성에 기여한다”[원칙 2]. 또한 “인간은 생존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제외하고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원칙 3](Naess, 1989: 29). 이와 같이, 심층생태학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의 필요충족이나 유용성과는 무관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다양성 자체도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강조된다.

심층생태학이 제기한 이러한 ‘자연의 내재적 가치’는 생태담론에서 주요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아직 이에 대한 어떤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러한 자연의 내재적 가치, 나아가 생태중심적 사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은 어떤 피상적 직관

에의 호소나 신비주의적 환상에의 의존을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층생태학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있다. 예로, 프롬(Fromm, 1992: 30)이 주장하고 구승희(1999)가 승인한 바와 같이, 심층생태학은 “인간의 허무성이 절대적 침묵에 싸여 있는 우주에 ‘신의 의지’를 투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욕망에 찬 인간정신은 생물중심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재 가치’를 동식물과 무생물에 투사한다…… ‘내재 가치’라는 ‘생물중심적’ 개념은 사람들 스스로가 가치 있는 세계의 막후 조종자임을 부정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이기심보다도 더 나르시스적인 인간중심주의”라고 비판된다. 즉 심층생태학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생명체는 단지 인간에게만 한정되며, 따라서 심층생태학은 불가피하게 인간에게 이러한 내재 가치를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심층생태학이 비록 생태중심적 개념이나 주장들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심층생태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심층생태학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함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때로 보다 직접적으로 현대사회의 환경위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생태운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근본적인 사회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사실 심층생태학의 등장은 사회적 배경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즉 심층생태학은 근대 사회와 문화에 내재된 모더니티의 비판으로서 등장한 것이며, 심층생태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기본적으로 얇은 생태학에 대한 철학적·과학적 관점과 관련된 사회운동이라는 점에서 고려된 것이다. 즉, 심층생태학은 얇은 생태학에 기초한 운동이 공해와 자원고갈에 저항해서 싸우며, 선진국들에서 사람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중심적 목적으로 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심층생태학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된 장소들의 재순환과 청결화와 같은 ‘개혁주의적’ 행동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를 정당화시키는 지배적 패러다임을 방치한 채 단지 단기적인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생태적 문제들

에 대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층생태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지배적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즉 ‘서구문화의 추진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지향’을 요청하는 변화이다(Sessions, 1985: 30).

이와 같이, 심층생태학자들은 자연을 보호하지는 단순한 개량주의적 생태주의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태중심적 윤리에 매몰되어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생태철학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심층생태학자들이 합의하고 그 발판으로 제시한 8가지 원칙들 가운데 5가지가 모두 사회적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Naess, 1989: 29). 즉, [원칙 4]는 “비인간세계에 대한 현재 인간의 간섭은 지나치며, 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원칙 5]는 “인간생명과 문화의 번성은 인구의 상당한 감소와 모순되지 않는다. 비인간 생명의 번성은 이러한 감소를 요청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칙 6]은 “보다 좋은 방향으로 생명 조건의 유의한 변화는 정책의 변화를 요청”하며, “이는 기본적인 경제적·기술적·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고, [원칙 7]은 “이데올로기적 변화는 주로 높은 생활수준을 고수하기보다는 통찰력 있는 생활의 질(내재적 가치의 상황 속에 살아감)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끝으로 [원칙 8]은 “이러한 점들에 기여할 사람들은 필수적 변화를 수행하기 위한 시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심층생태학은 분명 환경문제의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제(諸)영역에서의 변화와 사람들의 참여라는 매우 사회적인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주장들이 다른 생태중심주의적 개념들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매우 유의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Clark, 1996).

그러나 심층생태학이 가지는 이러한 사회적 원칙들의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심층생태학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는 신비주의적 직관 등에 호소하는 생태중심적 주장을 제시하는 반면, 환경위기를 유발하는 사회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이론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원칙 또는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심층생태학은 기본적으로 생태민주주의와 생태지역주의에 근거한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생태공동체(ecotopia)의 건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네스는 그의 초기 주장들(1973, 1985)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공감적인 것처럼 서술한다(또한 Naess, 1997a). 그는 계급적 제약을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녹색정치가 국지적·국가적·세계적 계급 차이를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그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심층생태학자들은 사회적 계급 또는 포괄적으로 사회주의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는다. 반면, 심층생태학은 상호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유주의적 사상들과 결합하거나(diZerga, 1996), 또는 배타주의적(그리고 민족주의적)이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파시스트적 정치체제(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비판되기도 한다(구승희, 1999). 이의 대표적인 예로, [원칙 5]에서처럼, ‘인구의 본질적 감소’는 지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질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는 주장은 파시즘적 환경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심각하게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생물평등주의와 자아실현으로서의 환경윤리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심층생태학의 일반적 의의와 그 한계는 많은 논평가들에 의해 흔히 지적되고 있지만, 사실 본 논문의 목적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심층생태학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함의된 생태철학적 윤리이다. 즉, 심층생태학은 생태철학적 윤리로서 생물계의 호혜적 평등과 자연과의 일체성에 기초한 자아실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가진다. 물론, ‘자아실현’은 네스의 저서들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지만, 발판으로 제시된 8가지 원칙들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의 부분적 함의조차 언급되지 않지 않았다. 그러나 심층생태학의 “두 가

지 주요 요소는 ‘생물중심적 평등’과 ‘자아실현’이며, 이들은 네스와 세션이 제시한 심층생태학의 8가지 기본 원칙으로 확장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Fox, 1990). 이와 같이, 생물평등주의와 더불어 자아실현은 심층생태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심층생태학의 생물평등주의와 관련하여, 네스(Naess, 1989: 166)는 “생명체의 어떠한 단일 종일지라도 다른 어떤 종들에 비해 생존 및 생활의 영위에 있어 더 많은 특정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심층생태학의 이러한 생물평등주의에 대한 주장에서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평등주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생명을 가진 개체로서 뿐만 아니라 종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와 관련된다. 즉 심층생태학은 생태적 장에서 모든 것들에 있어 생명과 번창에 대해 평등한 권리가 직관적으로 분명하고 매우 가치있는 공리라고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층생태학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들간의 ‘생물계의 호혜주의’를 강조한다. 둘째, 생물평등주의는 생물종들간의 호혜성, 즉 ‘공생’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생태적 호혜성은 비록 생태중심주의에 기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즉 인간에게 한정된 인류중심주의는 인간 자신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삶의 질은 부분적으로 다른 생명체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층적 기쁨과 만족에 의존한다. 셋째, 심층생태학의 생태중심적 평등원칙은 모든 생명들의 부분으로서 종속과 계층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절대적 이상과는 다르다. 따라서 네스는 생물중심적 평등의 일반 원칙에 집착하지만, 또한 “어떤 현실적 실천이 어떤 죽음, 착취, 억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Naess, 1973: 95; Naess, 1989: 168, 174).

나아가 심층생태학이 강조하는 생물권(biosphere)의 호혜주의는 단순히 물질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자아실현을 전제로 한다. 즉, 네스는 환경위기를 유발한 패러다임들의 근원적 전환을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규범으로, 생물중심적 평등과 더불어 ‘자아실현’을 제시한다. 네스에 의하면, 자아실현은 자아가 가능한 한 넓은 세계와 일

체화(또는 정체화, identification)되는 과정이다. 개체간 또는 종간의 차별화(다양성 또는 차이와는 구분되는)는 모든 사물들을 ‘보다 위대한 자아’로 통일되는 ‘동일성’(sameness)의 인지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개별적 자아의 완전한 실현은 오직 자연 전체성에 보다 큰 자아를 통합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보다 위대한 전체와 일체화됨으로써, 우리는 이 전체의 창조와 유지에 참여하게 된다. …생태철학적 전망은 이러한 일체화를 통해 매우 깊게 발달함으로써, 그 사람 자신의 자아는 더이상 개인적 에고(ego) 또는 유기체에 의해 여하히 제약되지 않게 된다”(Naess, 1989: 173-4). 네스는 계속해서, ‘깊고 포괄적이며 생태적인 자아’를 특징 지우는 보다 넓은 일체화는 생물중심적 평등의 이해에 기여하며, 자연의 모든 사물들은 자아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그들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평등하고, 이러한 점에서 다른 실체들에 손상을 입히는 소자아(self)/대자아(Self) 실현을 위한 잠재력의 소진을 통해 그 사물 자체의 자아에 손상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Hayden, 1997: 201). 네스는 이러한 자아실현을 심층생태학적 운동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 규범으로 설정한다.

네스에 의하면, 심층생태학이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자아실현은 비인간적 존재들, 나아가 자연 전체와의 정체화에 대한 ‘직관’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 개념은 어떤 철학적 전통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네스가 이러한 자아실현의 개념을 제시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상가는 스피노자와 간디이다.²⁾ 우선, 네스는 스피노자의 철학, 즉 자연과 신을 동일시하면서 모든 개체들은 이의 무한한 속성의 한 양태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자유는 그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보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스피노자에게 있어, 모든 사물들은 자아보전 또는 자아실현의 추구를 의미하는 코나투스(conatus)에

2) 네스는 스피노자와 간디 외에도 하이데거와 같은 사상가들에게도 호소한다. 즉 심층생태적 사고는 하이데거의 사상에서 네스(Naess, 1989: 61)가 ‘지리적 소속감’ 또는 장소에서의 ‘보급자리와 같은 존재감’이라고 부르거나 한 것들을 통해 얻게된다.

의해 특징지어진다. 또한 모든 사물들은 신/자연의 상호관련적 구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자아실현은 나와 상호관련된 타자들의 자아실현에 의해 고양된다(Naess, 1979: 236). 또한 네스는 “비이원성(non-duality)을 믿으며, 인간과 모든 살아 있는 것의 본질적 통일성을 믿는다”는 간디의 주장을 인용하며, 심층생태학을 단순히 야만적 야생이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일 뿐만 아니라 도살적 태도와 실행으로부터 인간성을 구원하기 위한 운동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와 간디의 영향 하에서, 네스는 한 사람의 자아실현은 모든 것의 자아실현을 요청한다는 주장을 새로운 생태철학적 규범, 즉 그가 ‘생태철학 T’(Ecosophy T)라고 지칭한 것을 통해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생태철학은 ‘생태적 조화와 평형상태의 철학’으로서, 인간의 착취와 지배로부터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과 운동들을 위한 유일한 동기적 힘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네스가 주장하는 이러한 생물평등주의와 자연과의 일체화를 통한 자아실현의 개념은 심층생태학이 강조하는 생태철학적 윤리의 핵심을 이룬다. 즉, 심층생태학은 “생물권 내 만물이 생명을 누리고 번영하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생태권 내에서 상호관련된 전체의 일부인 모든 유기체의 존재는 그 내재적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점을 생태철학적 윤리의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Devall & Sessions, 1985: 67). 이러한 생물평등주의와 자아실현의 개념은 생물권리에 대한 직관적 가치 인정, 나아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정당화시킨다. 즉 네스에 의하면, 생물계의 평등주의는 “생명의 형태와 이치에 대한 마음 속 깊은 존경 내지 숭배”라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생태계의 현장에서 바라볼 때 생명을 잇고 꽃피울 동등한 권리는 직관적으로 명백한 가치”라고 인정된다(Naess, 1973: 95). 이러한 점에서, 심층생태학은 인간의 삶의 질, 즉 다른 생명체와의 밀접한 공생의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깊은 즐거움과 만족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폭스(Fox, 1990)는 자아실현, 즉 지구의 복

지를 포함하기 위한 인간적 의식의 확대, 그리고 자아감을 확대하여 자연 세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자연세계와 일체감 형성을 통한 자아실현은 심층생태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³⁾

심층생태학이 강조하는 생태철학적 윤리, 특히 위의 두 가지 핵심적 개념인 생물평등주의와 자아실현은 오늘날 인간의 자연지배와 자연으로부터 소외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생물평등주의는 인간이 “모든 다른 종들의 지배자/주인이 아니라 생명공동체의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Devall & Sessions, 1985: 68). 또한 이와 같이 인간이 자연의 다른 종들에 비해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주체/객체의 이원론에서 주체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카르트의 코기토 또는 ‘인식론적 지배’(epistemocracy)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나아가 이러한 데카르트의 인류중심주의적 인식론에 의해 고쳐된 자연의 대상화 및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의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근대성에 대한 심층생태학자들의 반대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근대성의 선도적 이데올로기에서 핵심을 이루는 인류중심주의적 인간주의는 오늘날 근대사회에서 자연을 통제(지배)함으로써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했지만, 그 결과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소외시켰다. 이에 따라 자연의 통제를 위한 시도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아실현’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통제와 연계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심층생태학자들은 인류중심주의적 휴머니즘에서 생태중심주의적 ‘생물평등주의’로의 전환과 이를 통해 모든 존재들을 위한 자아실현의 규범을 강조하게 된다(Zimmerman, 1994: 1-2).

그러나 심층생태학자들에 의한 생물평등주의와 자아실현의 개념화는

3) 이러한 점에서, 폭스는 심층생태학을 이제 ‘초인간적(transpersonal) 생태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론의 ‘새로운 기반’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생물중심적 평등주의와 자아실현의 개념은 영성적 생태학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했다.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심층생태학이 강조하는 것처럼, 생물계의 평등과 권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 이러한 생물계에서의 평등과 권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네스는 이를 위해 생태적 직관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직관은 사실 인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달리 말해서, 인간을 제외하고는 심층생태학자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생물중심적 평등주의나 생물권리 및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사실 권리, 평등, 정의의 개념은 비록 자연과의 관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인간 없이도 지켜질 수 있는 것처럼 생물계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결국 자연을 신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평등주의 및 이와 관련된 개념들은 자연 그 자체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에 내재된 사회철학적 윤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심층생태학은 한편으로 생명체들의 자아보전과 번성을 위하여 내재적 가치에 기초하여 생물계의 평등을 강조하지만, “생물계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살상과 억압 그리고 착취”를 인정하기 위해 ‘원칙적인’ 생물권의 평등주의를 주장한다.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단서는 사실 생태계의 평등보다는 계층성을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주장에 내재된 논리적 모순은 심층생태학에 대해 대립적 관계에 있는 사회생태학의 복친에 의해 예시된다. 예로, “만약... 생물권 내의 모든 생물체의 생존권과 유기적 자기충족권의 가치가 동등하다면, 인간은 말라리아와 황열병 모기를 근절시킬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Bookchin, 1987: 36).⁴⁾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기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인간에게

4) 복친에 의하면, 생물계 안에서 오직 인간만이 이성적이며, 이러한 이성에 따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는 독특한 도덕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인간을 생물계의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모든 종들과 더불어 생물계 내의 ‘동등한 시민’으로 가정하는가의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복친(Bookchin, 1982)은 생물중심주의가 불필요하게 인간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한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도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셋째, 심층생태학에서 강조되는 생물평등주의는 인간과 비인간 간, 또는 종들 간의 근본적 호혜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람들간의 평등을 위한 도덕적 및 정치적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인간들간의 평등에 관한 문제를 의문상태로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Stark, 1995: 270). 즉 “인류의 탈중심화”를 외치는 심층생태학은 여성, 유색인, 빈민, 소외계층이 다국적기업, 비인간적 관료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와 자율성을 포기하라는 강요”라고 주장되고 있다(구승희, 1999). 또한 이러한 윤리관과 관련된 ‘생물지역’(bioregion) 또는 생태공동체의 사고 역시 문제성을 안고 있다. 심층생태학은 민주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체를 위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자연과의 일체성은 인간과 비인간적 종들 간, 나아가 자연의 구성물들 간의 평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생물계적 호혜주의’에 대한 단언은 사회정치적 호혜주의를 규정하지 않는다. 모든 종은 평등하다는 주장은 한 종 내의 어떤 개인, 집단 또는 공동체들 간의 평등의 조건이나 성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넷째, 심층생태학이 강조하는 자연과의 일체성을 통한 자아실현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비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이 생략되어 있다. 즉 심층생태학은 근대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자기충족, 또는 타자(다른 사람, 다른 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종)가 배제된 절대적 주체에 대한 자기 집착을 자아실현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에 대해 보다 철저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층생태학은 자아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제조건들로서 필요의 충족과 자아의 성찰 등에 대한 강조를 결하고 있다. 즉, 자연과의 일체성을 통한 대자아의 실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인간생존을 위한 신체의 물질적 필요충족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심층생태학은 자아실현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생존을 위한 물질적 필요의 충족과 관

련된 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심층생태학은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주체성(소자아)을 상대적으로 왜소화시키는 한편, 자연과의 일체성을 통한 대자아의 실현을 강조하지만, 대자아를 향한 인간의 자아실현은 현실적으로 ‘자아’(즉 자아의 성찰성)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4. 심층생태학과 탈구조주의적 생태학

심층생태학은 분명 포스트모던 생태학의 한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주도하는 탈구조주의와 많은 공통점들을 가진다. 즉 “심층생태학은 포스트모던 환경론이다. 따라서 이는 포스트모던 담론의 가정, 분석형태 그리고 스타일을 반영한다”(Stark, 1995: 268). 이러한 관점에서 심층생태학은 흔히 좁은 의미의 포스트모더니즘, 즉 푸코(Foucault), 데리다(Derrida), 들뢰즈(Deleuze) 등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탈구조주의적 사상간에 공통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우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심층생태학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기원하는 인류중심주의적 근대성을 생태위기의 근원으로 이해하고, 산업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한 과학기술은 자연을 대상화하고 지배하기 위한 이성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심층생태학과 탈구조주의는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성에 기초한 인간중심적 근대성과 그 주요 조건들을 차단 또는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하나의 탈근대적 모험”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또한 심층생태학은 근대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이에 대립되는 맑스주의도 비판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심층생태학은 기존의 대서사를 부정하고 이를 해체하고자 하는 포스트구조주의들과 입장을 공유한다. 즉, 심층생태학의 “생태철학은 근대성에 대한 탁월한 비판이 되고, ‘그것이 그 자체로서 탈근대적 패러다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정화열, 1996).

그러나 보다 유의한 공통점으로 심층생태학은 탈구조주의자들의 철학적 전통, 즉 스피노자, 니체, 그리고 하이데거로 이어지는 반데카르트적 철학의 전통 속에 위치지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상당히 유사한 윤리적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즉, 심층생태학자들은 탈구조주의자들과 유사하게 다양성, 차이, 복합성, 공생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자연과의 일체성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네스의 개념화를 가능하게 한 스피노자의 철학은 대표적 탈구조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들뢰즈의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한 심층생태학의 생태철학적 윤리와 탈구조주의자들의 주장에 명시적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그들의 저술 속에 암시되어 있는 생태적 의미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심층생태학자들은 아주 명시적으로 생태학적 개념들을 구사하면서 환경적 윤리와 이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어떤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탈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은 생태적 논제들과 분명한 연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은 흔히 환경담론에 직·간접적으로 원용될 수 있는 여러 개념들을 사용하고 때로 생태운동의 사례에서부터 자연철학의 비판과 재구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의 용어들은 매우 난해하고 때로 모호하고 흔히 은유(메타포)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환경문제들의 이해에 직접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생태학에 대한 많은 논평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탈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을 준거로 동원한다. 대표적 사례로, 짐머만(Zimmerman, 1994, 138)은 “심층생태학자들은 인류중심주의에 대한 데리다의 해체에 합의하지만, 이들은 자연, 야성(wilderness) 그리고 생태계(ecosphere)의 해체에 대해서는 저항하면서, 생태중심주의를 인류중심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데리다를 포함한 탈구조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자연간의 이원론에서 데카르트 이후 인간에게 부여되었던 중심성을 자연에게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며, 생태적 위기는 이와 같이 자연 또는 생태계에 어떤 형이상학적 절대성을 부여함으로써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스타크(Stark, 1995) 역시 심층생태학자들의 자연주의적 주장들의 근거는 자연주의에 대한 어떤 본연적 증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심층생태학이 ‘자연’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의 범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층생태학의 반인류중심주의는 사실 궁극적으로 매우 위험한 ‘자연주의적’ 담론이 된다고 비판한다. 스타크의 이러한 주장은 탈구조주의에 근거하기보다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⁵⁾ 탈구조주의자들의 권력담론 분석에 입각한 짐머만(Zimmerman, 1994: 97-104) 역시, 심층생태학의 생태중심주의는 권력-동기화된 입장이며, 심지어 네스의 ‘생태철학 T’(Ecosophy T)도 다른 여러 관점들 가운데 하나의 권력-관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웁(Wyck, 1997)의 주장은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역시 탈구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심층생태학의 형이상학적 오류를 지적하면서,⁶⁾ 환경이론과 문화연구 간의 통합을 요청한다. 특히 그는 하라웨이(Haraway)의 사이보그 이론, 푸코의 감시 및 권력의 개념, 들뢰즈의 ‘사상의 이미지’라는 개념 등을 동원하여, 심층생태학을 비판하고자 하지만, 그의 주장은 북친의 사회생태학과 유사하다. 웁에 의하면, 심층생태학은 인간의 필요에 대해

5) 스타크(Stark, 1995: 270, 277)는 “윤리적 추론에 있어, 심층생태학은 자연에 대해 기묘한 영적 단언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버마스와 다른 비판이론가들이 제시한 “합리적 담론의 실용적 기반들이... 복잡한 비판적 과제를 제한하지만, 분명 포스트모던 환경론에 잘못된 신비화보다는 더 선호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6) 웁(Wyck, 1997)이 심층생태학의 일반적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생태학은 환경위기의 원인을 인간 전체에 돌으로써, 남성과 여성, 선진국과 후진국, 부자와 빈자 등의 사회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심층생태학은 사회적 변화보다는 영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분석할 수 개념들이 없다. 둘째, 나아가 심층생태학은 인간 주체성과 자연세계를 신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이들간의 차이를 말살한다. 심층생태학은 주체성, 신체 등에 관한 이론을 가지지 못했다. 셋째, 무엇보다도 심층생태학은 사회가 어떻게 개념적 및 물질적 현실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이론화할 수 없다. 넷째, 심층생태학은 인간의 본래 조건을 순수하고 선하다는 믿음에 호소하는 ‘정초주의’(foundationalism) 및 근본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지구의 필요에 우선권을 주는 맬더스주의적 반인간주의로 비판된다. 나아가 워튼 심층생태학의 반모더니즘이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의 등장에서 나타났던 반동적 철학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사회주의가 개인을 국가에 순종하도록 한 것처럼, 심층생태학은 개인을 자연에 순종하도록 요청한다. 요컨대 심층생태학은 ‘미래의 원시주의’를 선호하며, 이러한 문제성은 심층생태학이 문화적 연구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이론적 및 정치적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루크(Luke, 1997)도 부분적으로 비판이론에 근거를 두지만 포스트모던 범주들을 이용하여, 심층생태학 및 이와 관련된 보수적 환경담론들(예로, ‘Earth First!’, Worldwatch Institute, The Nature Conservancy 등)을 비판하고, 특히 심층생태학의 반모더니즘 및 ‘미래 원시주의’에 대해 비난한다. 물론 그는 심층생태학의 긍정적 측면으로, 소비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자연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심층생태학은 생태중심주의에 기초함으로써, 자연의 영성에 의존하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한편, 실질적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탈구조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물론 심층생태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의 반론에 의하면, 심층생태학은 모더니즘도 아니지만 포스트모더니즘도 아니며, 오히려 이들 양자를 모두 비판하며, 특히 포스트모더니즘간의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Naess, 1995, 1997b; Sessions, 1995). 우선 심층생태학자들은 그들의 생태철학이 “야생종과 지구의 생물다양성이 존재하고 번성할 수 있는 실재론적인 생물학적 조건”에 근거하며, 오히려 탈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짐머만이 주장하는 “인류중심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후자의 “견해에는 지구의 생물학적 통합성은 완전히 의문 밖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세션의 주장에 따르면, “생태중심적 심층생태학과 생태운동의 주요 목적은 근대 인간이 비인간적 자연에 대해 가지는 지배와 권력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짐머만이나 그외 논평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태중심적 규범

이 단지 또 하나의 인간권력 관점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사회적 범주’로서의 자연, ‘자연의 재창출’, 그리고 ‘각축적 지구 미래’의 기반으로서 인간의 필요와 욕망에 관한 개념 등, 자연과 관련된 이러한 맑스주의적/포스트모던 개념은 비인간적 자연에 대한 인간권력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Sessions, 1995).

그리고 심층생태학이 생태중심주의에 기초함으로써, 실질적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한계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해, 심층생태학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초정치적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네스(Naess, 1989: 20)는 “나는 윤리나 도덕에 관심이 없다. 나는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관심이 있다. ...만약 심층생태학이 심층적이라면, 이는 단순히 윤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윤리는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뒤따른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을 접합했다면, 이는 철학 또는 종교이다.” 이러한 점에서 심층생태학은 정치적 행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윤리의 문제를 형이상학적 철학과 종교적 믿음의 문제로 신비화시킨다고 비판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루크(Luke, 1997)는 심층생태학자들이 정치적 행동과 윤리의 문제를 무시하고, 분배적 정의와 같은 사회적 논제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기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심층생태학은 인간이 충족시켜야 할 권리로서 기본적인 생존적 필요를 규정할 기준들을 제시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생활양식에 대한 상이한 주장들간의 잠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질 못한다고 비난한다. 결국 심층생태학자들은 ‘생물중심적 평등’을 강조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떤 주장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물중심주의는 불가피하게 ‘부드러운 인류중심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심층생태학의 주요 개념들, 특히 생물평등주의와 자아실현이 환경정의의 이론화를 위해 어떠한 함의와 한계를 가지는가를 고찰해볼 수 있다.

5. 심층생태학적 환경정의론의 가능성과 한계

심층생태학에서 환경정의와 관련된 논의들은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첫째, 심층생태학 전반에서 볼 수 있는 환경윤리적 개념들에 (특히 암묵적으로) 함의된 환경정의적 의미, 둘째, 심층생태학의 특정 부분에서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주장들, 셋째, 심층생태학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되는 어떤 변형된 주장들에서의 환경정의적 함의 등에 관한 검토이다.

1) 생물평등과 자아실현으로서의 환경정의

먼저, 심층생태학 전반에 포괄되어 있는 생물평등주의 및 이와 관련된 다원성과 공생의 원칙은 어떤 한계를 안고 있지만, 우선 환경정의를 위한 많은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즉 심층생태학은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는 ‘생존하고 번성할 동등한 권리’를 ‘직관으로 다가가는 명백한 가치이며 원리’라고 강조한다. 또한 생태계의 다양성은 “생존가능성, 새로운 생활양식의 기회, 생명체의 풍요로움을 고양”시키고,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공존하고 협력하는 능력, 즉 ‘너 아니면 나’라는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 살게 하는 것’이라는 공생의 논리가 더 강력한 생태계의 원칙이라고 주장한다(Naess, 1973). 복잡한 또는 총체적인 관계망 속에서의 다양성과 공생이라는 개념은 ‘환경-속의-인간’이라는 이미지를 거부하고 ‘관련적 총체적 장’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주체/객체, 인간/자연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개념은 나아가 자연과의 일체화 과정으로서 자아실현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즉, 총체적 관계망의 결절점으로서 유기체들간의 공생 또는 공존은 나아가 그 유기체와 관계망 전체 간의 자아실현 관계로 나아간다.

심층생태학에 전반적으로 함의되어 있는 이러한 생물평등주의와 다양성 및 공생의 원칙은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우선 이러한 생물중심적 평등은 종 또는 군집 간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살상, 약탈, 억압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네스가 심층생태학의 발판으로 제시한 이러한 원칙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일련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원칙들을 누가 제시하며, 이들을 적용한 판단을 누가 하는가의 의문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이러한 원칙들이 직관에 기초한다면, 누가 이런 직관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 즉 홀만(Hallman, 199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명의 보전과 번성에 대한 평등한 권리는 직관적으로 명백한 원칙이라고 어떻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가?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관한 직관이라는 주장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서, 생물 평등과 다양성 및 공생의 원칙들이 실천적 규범으로 설득되기 위해서는 직관이 아니라, 예로 합의를 위한 담론적 과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의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층생태학은 인류중심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을 통한 합의 또는 담론 비판의 정치를 제시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생명체들간 공생의 개념을 자아실현의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네스는 어떤 오류를 범한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는 종으로서 그 잠재력의 완전한 성숙, 즉 자아실현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한 생명체의 자아실현은 다른 생명체의 파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네스의 대응에 의하면, “어떤 원칙으로서 잠재력을 펼치기 위한 평등한 권리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평등한 행동의 실천적 규범이 아니다. 이는 살상에 대한 제한,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다른 생명체들이 잠재력을 펼치는 것에 대한 방해의 제한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Naess, 1989: 174). 즉 네스의 자아실현 개념은 들뢰즈(Deleuze)의 적극적 공생의 개념에 의한 잠재역량의 증대가 아니라(최병두, 2001), 자유론적 개인주의 입장에서 소극적 평등을 통한 자기충족의 개념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요컨대 “심층생태학은 단지 특정한 인간적으로 인지된 가치(자연의 내적 가치)를 환경에 투사하고, 이로 인해 정의와 자아실현과 같은 다른 비판적 사회규범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되기도 한다(Low and Gleeson, 1998: 142).

2) 기본적 필요충족으로서의 환경정의

심층생태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두 번째 유형의 환경정의는 생물 평등, 다양성과 공생, 그리고 자아실현 등과는 상이한 측면이지만, 그러나 이를 위한 최소(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체의 (물질적) ‘필요의 충족’과 관련된 것이다. 네스(Naess, 1989: 206-7)에 의하면, 인간은 단순한 소망과는 구분되는 필요를 가지며, 개인이나 종이 생존하기 위하여 이러한 생물적 필요(예로, ‘음식, 물, 영토’)는 무조건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며, 그외에도 의복이나 주거와 같이 다른 종보다는 인간에게 필요한 사회적 필요의 충족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 필요의 충족은 모든 잠재력의 자아실현을 위한 최소조건일 뿐만 아니라 지배와 착취, 나아가 계급사회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즉, 네스(Naess, 1989: 207)에 의하면,

“① 자아실현의 최소조건들의 충족은 다른 것에 앞선다. ② 이러한 충족은 생물적·환경적·사회적 필요의 최소만족을 의미한다. ③ 현재의 조건에서 많은 개인들과 집단들은 생물적·환경적·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반면 다른 것들은 풍요 속에 살고 있다. ④ 객관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일부 개체와 집단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원들은 최소수준 또는 그 이하로 살아가는 개체나 집단들의 수를 최대한 그리고 영구히 줄일 수 있도록 재배분되어야 한다.”

네스는 이러한 조건의 충족을 설명하면서 일정하게 맑스주의적 주장을 따라간다. 즉 자아실현은 모든 잠재력의 실현을 요구하며, 착취와 종속은 잠재력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때문에 이들은 반대하며, 모든 것은 자아실

현을 위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계급사회는 반대된다. 그러나 네스(Naess, 1989: 207)는, 이러한 “자아실현을 위한 근본적 규범은 지구상의 정의의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생물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의 기본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분배적(경제적) 정의는 자연과의 일체성(즉 ‘정체성의 정의’)을 통한 자아실현의 최소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심층생태학자들이 생태중심주의 또는 자연신비주의로 나아가면 갈수록, 자아실현에 함의된 정의의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필요충족을 위한 정의의 개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필요충족의 정의에 관하여 논의하는 부분에서도 ① 그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② 자아실현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제시하거나, ③ 또는 심지어 부정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네스가 심층생태학을 제안하는 초기 단계에 이러한 필요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네스(Naess, 1973)는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공간규모 그리고 공간이 충족시켜야 할 필요요건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인문도시학자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로 인해 등장한 행태 군집화 증후군들, 즉 노이로제, 공격성, 전통 상실 등은 인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포유류에게도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편으로 네스가 생명체의 공간적 필요충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간적 필요’에 근거한 나치의 침략전쟁과 같은 것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네스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생태·환경학자들이 ‘세계적 환경윤리’를 위한 회의에서 기조로 제안한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Naess, 1999: 24). 여기서 그는 환경정의를 공생 또는 자아실현과 관련된 의미가 아니라, 물질적인 자원의 분배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즉, “환경정의는 선진 산업국들의 생산 및 소비 패턴에의 세계적 근접이라는 점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 패턴은 보편화될 수 없다. …[환경정의]는 삶의 물질적 수준

이 아니라, 자연에의 접근 그리고 자원의 산업적 및 여타 이용을 유용하게 하는 기술수준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환경정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는 암묵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명시적으로는 롤즈의 절차적 정의론을 따르고자 한다.

세 번째 사례는 환경정의론의 관점에서 심층생태학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에서 나타난다. 도위(Dowie, 1995)는 유색 소수인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정의운동의 관점에서 미국의 환경운동을 서술하면서 심층생태학에 대해 논평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션(Sessions, 1995)은 도위가 “환경운동이 유색인에 의해 유도되어야 하며, 지구적 생태위기에 서 환경적 사회정의의 인류중심적 논제의 그 우선성을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심층생태학을 비판한 로스(Ross, 1994)에 대해서도 세션은 “로스가 포스트모던 해체주의의 견해를 따르면서, 인류중심적이며 ‘다문화주의’에 관한 최근의 경향 속에서 사회정의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나아가 “맑스주의적인 인류중심적 상대주의적 교리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심층생태학은 기본적 필요충족과 관련된 기존(또는 좁은 의미)의 환경정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왜곡, 고립, 부정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심층생태학이 올바르게 주체/객체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 사이 관계를 진정하게 설정하고자 한다면, 기본적 필요충족을 위한 정의(최소환경정의)와 자아실현을 위한 정의(최대환경정의) 간의 관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환경정의운동은 빈자와 소수인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관점이 환경정책이나 주류 환경운동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깨닫고 구조적 또는 담론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견해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Chiro, 1996). 이러한 점에서 보면, 환경정의운동은 퇴락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국지적(특히 도시) 주민들이 자신의 위협받은 생계·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한 운

동이라면, 심층생태학자들은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강조하긴 하지만 생태중심적 사고 속에서 마치 자연을 인간과는 분리된 실체로 다루면서 자연의 생명체나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 현지주민과 야생 생명체의 보존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때 [자아실현에 기초한] 환경정의의 개념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Warren, 1998).

3) 승인과 존중으로서의 환경정의

물론 환경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환경철학자나 정책입안자 그리고 지역 사회활동가들은 대부분은 사회정의에 관한 서구의 주류 분배적 모형과 관련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논제가 동물이나 야생 및 종의 보존이든 인간의 건강이나 빈곤 또는 생활환경의 퇴락 등 무엇이든 환경정의를 거의 전적으로 분배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물질적 측면에서 기본적 필요의 충족과 관련된 분배적 정의의 관점은 환경정의를 논의하기 어렵거나 또는 매우 제한된 영역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축소시킨다. 종들간, 특히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들 간의 평등과 정의는 자원의 분배 문제를 능가하며, 설령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배모형에 따라 생물들간 평등과 정의를 논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심층생태학의 생물평등주의에서 강조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관한 직관적 신비화와 닮아 빠지지 아니하면서도 그 의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심층생태학의 이러한 변형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환경정의의 개념이 있다면, 이는 세 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심층생태학의 변형에서 이러한 세 번째 측면의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는 예로 플럼우드(Plumwood, 1993, 1999)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은 목적지향적이며, 결국 자연이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자연은 일종의 살아 있는 의도적, 목적론적, 자아결정적, 그리고 감성적인 집합체로 이해된다. 플럼우드의 주장은 일반

적으로 생태여성주의에 기초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분명 심층생태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그녀는 근대문화의 억압적 불평등에 반대하면서, ‘차이’와 ‘타자’에 관한 포스트모던 논제를 환경윤리의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것으로 끌어들이는다.⁷⁾ 즉 그녀에 의하면 근대문화에서 불평등한 이원론은 억압의 계층을 항상 차이의 속성으로 단언되지만, 포스트모던 생태학자들이 강조하는 차이는 계층이 없는 차이, 지배가 없는 차이, 또는 비계층적 차이로서 타자성에 관한 사고를 의미한다. 여기서 타자는 차이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내포적인 속성을 가지며, 다른 종, 다른 종의 개체, 그리고 ‘지구적 타자’(earth others)를 포괄한다. 또한 여기서 지구적 타자는 “상호 교환과 전환 그리고 ‘상호작용의 댄스’라는 점으로 의도적 입장에서 인지된다.” 나아가 ‘의도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타자의 내재적 가치를 위한 승인(recognition)과 존중은 배려의 윤리 및 차이의 존중에 대한 근본적인 부가어이다”(Plumwood, 1993: 156, 160).

플럼우드 주장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바로 ‘타자의 내재적 가치에 관한 승인과 존중’으로서의 환경정의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녀에 의하면, 타자의 가치는 유기체 그 자체에 내재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내재적 차이 또는 공생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는 ‘관계-속에-있는-자아’(self-in-relationship)로서의 생태적 자아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생태적 자아는 일종의 관련적 자아로 간주되며, 그 자신의 우선적 목표들 가운데 지구적 타자와 지구 공동체의 번성이라는 목적, 그리고 이에 따라 그들 자신을 위하여 타자들을 위한 존중과 배려를 포함한다”(Plumwood, 1993: 154). 그녀에 의하면, 이러한 자아의 개념은 “도구주의가 어떻게 피해질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아, 즉 자연과의 비도구주의적 관계 속에 있는 자아에 관한 설명을 위해 적절한 기반을 제공한다.”

7) 이와 같이 제도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차이’의 승인은 특히 Young(1990a; 1990b)에 의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플럼우드드는 근대성에 내포된 도구주의적 자아의 개념뿐만 아니라 심층생태학의 한계, 즉 절대적 대자아를 지향하는 소자아라는 네스의 문제성을 탈피한다. 나아가 이러한 점에서 윤리적 개념을 인간에게만 한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정의의 성분들인 일단의 윤리적 입장들을 비인간적 자연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에 의하면, 이 자연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 또는 효용과 같이 인간사회에 기초한 단일한 정의의 개념을 비인간 영역에 투사하기보다는 다중적으로 중첩하는 정의의 영역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Plumwood, 1999). 이러한 점에서 그녀는 흔히 생명의 내재적 가치로서의 ‘권리’(즉 동물권 또는 생물권)라기보다는 차이로서 내재적 차이의 승인과 존중으로서 환경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6. 결론

오늘날 전인류가 봉착해 있는 환경위기는 단순히 산업공해를 줄이고 자연자원을 보다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식, 개량적 또는 ‘얇은 생태학’적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환경위기는 서구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했던 근대성에 내재된 전반적인 문제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층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환경위기는 근대성에 의해 형성된 현대사회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겠다. 심층생태학을 포함하여 근본환경론 또는 나아가 포스트모던 생태학은 이러한 주체/객체, 인간/자연의 이분법 속에서 절대적 주체성, 인류중심주의, 획일적 전체주의 등을 강변하는 반근대성을 저항하여, 통일성을 전제로 한 다원성과 복합성, 평등과 공생을 강조하는 생태중심주의 등을 위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심층생태학이 강조하는 생물평등주의와 자아실현의 개념

은 도구적 자연지배과정에서 황폐화된 현대인들의 환경의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환경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관한 직관에 의존하는 생물평등 및 이러한 자연과의 일체화, 즉 자아실현의 개념은 심층생태학 특히 네스의 주장들이 신비적이고 영적인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따라서 심층생태학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통한 자아실현의 개념은 서구사회의 규범에서 분명 새로운 의미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보다 치밀한 철학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하비의 해석에 의하면, “심층생태학은… 여기서 암묵적으로 ‘인간 본질’ 또는 ‘인간 잠재성’(또는 맑스의 언어에서, 류적 존재로서, 그 성질이 완전히 실현하게 된 인간)의 사고에 호소한다. 오늘날 인간성은 자연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해 이러한 인간 본질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되게 되었다. 상실된 연계(근대적 기술, 상품생산, 자연에 대한 프로메스적 또는 실용적 접근, 화폐 흐름의 ‘상품화 등에 의해 단절된)를 복원하고자 하는 바램은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라는 직관적, 관조적(contemplative), 그리고 현상학적 고찰의 근원에 놓이게 된다”(Harvey, 1996: 168).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심층생태학이 강조하는 생물평등과 자아실현의 개념을 환경정의의 기본원칙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으로서의 최대환경정의를 위하여 기본적 필요충족이라는 최소환경정의의 실현의 필요성, 나아가 심층생태학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된 존중과 배려의 개념을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이론화를 위한 바탕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한편으로 심층생태학이 안고 있는 신비주의적 담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유사한 개념들과 전통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탈구조주의적 생태학으로 관심을 전환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심층생태학이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결국 그 소외의 조건이 만들어놓은 덫에 걸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신비주의적 개념화를 초래한 현실사회의 조건에 대해서도 더 많은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승희. 1999, 「자연의 탈마법화와 휴머니즘의 재마법화: 현대 생태사상의 자연-신비주의 비판」, 안동대학교 국제학술대회 발표원고.
- 정화열. 1996, 「생태철학과 보살핌의 윤리: 다시 거주할 만한 지구를 위하여」, 《녹색평론》 29(7-8월호).
- 최병두. 1998, 「생태학과 환경정의」, 《대한지리학회지》 33(4), 499-523쪽; 최병두, 1999,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재수록.
- _____. 2001, 「포스트모던 생태학과 공생과 차이로서의 환경정의」, 《대한지리학회지》 36(3), 292-312쪽.
- Bookchin, M. 1982, *Ecology of Freedom: The Emergence and Dissolution of Hierarchy*, Palo Alto, C.A.
- _____. 1987, "Thinking Ecologically: A Dialectical Approach," *Our Generation*, 18(2).
- Chiro, G. D. 1996, "Nature as Community: The Convergence of Environment and Social Justice," in W. Cronon(ed.), *Uncommon Ground: Toward Reinventing Nature*, W. W. Norton Co, New York and London.
- Clark, J. 1996, "How Wide is Deep Ecology?," *Inquiry* 39, pp.189-201.
- Devall, B. 1980, "The Deep Ecology Movement," *Natural Resources Journal* 20(2).
- Devall, B. and G. Sessions. 1985,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Gibbs Smith Publisher, Salt Lake City.
- diZerega, G. 1996, "Deep Ecology and Liberalism: The Greener Implications of Evolutionary Liberal Theory," *Review of Politics* 58(4), pp.699-734.
- Dowie, M. 1995, *Losing Ground: American Environmentalism at the Close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 Fox, W. 1990, *Toward Transpersonal Ecology: Developing New Foundations for Environmentalism*, Shambala, Boston.
- Frodeman, R. 1992, "Radical Environmentalism and the Political Roots of Postmodernism: Differences that Make a Difference," *Environmental Ethics* 14, pp.307-319.
- Fromm, H. 1992, "Ecology and Ideology," *Hudson Review*(구승희, 1999에서 재인용).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Polity, London; 이윤희·이현희 역, 1991,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 Hallman, M. O. 1991, "Nietzsche's Environmental Ethics," *Environmental Ethics*, Vol. 13, pp.99-125.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London.
- Hayden, P. 1997, "Gilles Deleuze and Naturalism: A Convergence with Ecological Theory and Politics," *Environmental Ethics*, Vol. 19(2), pp. 185-204.
- Low, N. and B. Gleeson. 1998, *Justice, Society and Nature: an Exploration of Political Ecology*, Routledge, London.
- Luke, T. W. 1997, *Ecocritique: Contesting the Politics of Nature, Economy and Culture*, Routledge, London.
- Naess, A. 1973,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16; 문순홍, 1999, 『생태학의 담론』, 솔, 66-76쪽에 번역.
- Naess, A. 1977, "Spinoza and Ecology," *Philosophia*, Vol. 7(1), pp.45-54.
- _____. 1979, "Self-realization in Mixed Communities of Humans, Bears, Sheep, and Wolves," *Inquiry* 22, pp.231-241.
- _____. 1989,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_____. 1995, "The 'Eight Points' Revisited," in G. Sessions(ed),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Shambhala, Boston, pp.213-221.
- _____. 1997a, "Deep Socialism? An Interview with Arne Naess," *Capitalism, Nature, Socialism* 8(1), pp.69-85.
- _____. 1997b, "Heidegger, Postmodern Theory and Deep Ecology," *The Trumpeter* 14(4).
- _____. 1999, "An Outline of the Problems Ahead," in N. Low(ed.), *Global Ethics and Environment*, Routledge, London, pp.16-29.
- Plumwood, V. 1993,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Routledge, London.
- _____. 1999, "Ecological Ethics from Rights to Recognition: Multiple Spheres of Justice for Humans, Animals and Nature," in N. Low (ed.), *Global Ethics and Environment*, Routledge, London, pp.188-212.
- Ross, A. 1994, *The Chicago Gangster Theory of Life: Nature's Debt to Society*, Verso, London.
- Sessions, G. 1985, "Ecological Consciousness and Paradigm Change," in

- M. Tobias(ed), *Deep Ecology*, Avant Books, San Diego.
- _____. 1987, "The Deep Ecology Movement: A Review," *Environmental Review* 9.
- _____. 1995, "Postmodernism,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Demise of the Ecology Movement?," *The Trumpeter* 12(4), pp.191-196.
- _____. (ed.) 1995,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Shambhala, Boston.
- Stark, J. A. 1995, "Postmodern Environmentalism: A Critique of Deep Ecology," in B. R. Taylor(ed.), *Ecological Resistance Movements: The Global Emergence of Radical and Popular Environmentalism*, SUNNY, New York.
- Van Wyck, P. C. 1997, *Primitives in the Wilderness: Deep Ecology and the Missing Human Subject*, State Univ. of New York.
- Warren, K. J. 1998, "Environmental Justice: Some Ecofeminist Worries about a Distributive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Twentieth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Boston, USA, 10-15, August 1998. <http://www.bu.edu/wcp/papers/gend/gendwarr.htm>.
- Young, I. M. 1990a,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_____. 1990b, "The Idea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L. J. Nicholson(ed), *Feminism/Postmodernism*, Routledge, London, pp. 300-323.
- Zimmerman, M. E. 1993, "Rethinking the Heidegger-Deep Ecology Relationship," *Environmental Ethics* 15, pp.195-224.
- _____. 1994, *Contesting Earth's Fu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